

나무와 우리민족의 삶(2)

임 경 빈 / 원광대학교 교수

(前號에서 계속)

우 리 先祖들이 어떠한 나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 또는 어떠한 나무의 이름을 듣고 있었을 것인가. 나무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쓸모를 생각할때 그 수는 줄어든다.

오래된 中國 古典 詩經에는 많은 나무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시경은 우리나라 선비들에게 至大한 영향을 주었고 또 주고있는 책이고 보면 그 안에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깊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陽貨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네들은 시경공부를 하였는가. 시경을 공부하면 興이 나고 事物을 잘 관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習性을 기르고 옳바르지 못한 것을 批評할 수 있게 해주고 父母와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며 새, 짐승, 풀 그리고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해준다』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 끝쪽에 나무이름을 많이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 것을 뜻하고 있다.

(1) 다음에 詩經에 나타나는 나무이름의 頻度에 따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0번 이상 出現하는 나무

대추나무(棘), 뽕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5

5 번 이상 出現하는 나무

소나무, 측백, 복숭아나무, 팔배나무, 구기자나무, 칩

3 번이상 出現하는 나무

개암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 느릅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붉나무, 상수리나무, 옷나무

2 번이하 出現하는 나무

가죽나무, 고리버들, 개오동나무, 굴거리나무, 감탕나무, 너도밤나무, 닥나무, 떡갈나무, 담쟁이덩굴, 매화나무, 모과나무, 벽오동나무, 산수유나무, 산유자나무, 싸리산앵두나무, 사시나무, 산초나무, 오동나무, 오얏나무, 육박나무, 위성류, 의나무, 쥐똥나무, 잣나무, 작약, 참죽나무, 채진목등

위에 든 나무는 거의 모두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몇 千年前의 漢字로 된 나무이름을 現時의 나무이름으로 맞추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된다.

(2) 山海經의 나무

山海經은 中國 옛적의 책으로 著者の 이름과 成立年代는 알 수 없다. 18권으로 된 神話를 많이 담고있는 中國古代의 地理書이다. 禹王이 治水를 했을때 일을 함께 한 伯益과 함께 만들었다고 하나 傳說의 領域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 중 五藏山經의 5 권은 戰國時代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나중에 晉나라의 郭璞(276~324)이 주를 붙였을 때 海經의 일부가 附加되어서 거의 오늘날의 책내용으로 되었다는 것이 定說로 믿어지고 있다.

이 책에는 각종 나무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神話性 즉 架空的인 나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소나무, 잣나무, 모감주나무, 옷나무, 가래나무, 뽕나무, 감탕나무, 참중나무, 대나무, 복숭아나무, 닥나무, 참나무, 박달나무, 녹나무, 두릅나무, 조릿대, 떡갈나무, 회화나무, 오동나무, 가죽나무, 오얏나무, 싸리개암나무, 종려, 탕자나무, 가시나무, 버들광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굴, 살구나무, 매화나무, 전나무, 산초나무, 배나무 등이 나타나고 가공적인 나무로서 부상(扶桑), 약목(若木),

이수목(二樹木), 팔수(八樹), 주수(珠樹), 낭간수(琅玕樹), 불사수(不死樹), 적목(赤木), 현목(玄木), 백목(白木), 심목(尋木), 감목(甘木) 등 아직 더 많은 신화적인 나무이름이 나타난다.

(3)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의 나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歷史書籍에 나타나는 나무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회화나무, 대나무, 목단, 회양목, 느릅나무, 뽕나무, 오동나무, 버드나무, 차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소나무, 옷나무, 매화나무, 황철나무, 구지뽕나무, 사시나무, 잣나무(柏), 단풍나무, 뽕나무, 향나무, 진달래, 자단(紫檀)이 기록되고 있다. 외국수종인 자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우목(雨木) 가을목(加乙木) 등이 있다. 식물로는 연꽃이 기록되고 있다.



(4) 山林經濟 및 林園經濟誌의 나무

朝鮮朝時代에 나온 우리나라 實學書籍의 대표라고 믿어지는 위 두책에 나오는 나무 이름을 들어본다. 이러한 나무는 당시 經濟的으로 그 價値가 인정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뽕나무, 닥나무, 옷나무,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은행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두릅나무, 해당화, 앵두나무, 모과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능금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산다화, 치자나무, 서향, 석류나무, 철쭉, 배롱나무, 정향, 산수유, 모란, 산사나무, 복분자, 회화나무, 탕자나무, 오갈피, 자귀나무, 황벽나무, 개나리, 구기자나무, 으름, 인동, 고욤나무, 개암나무, 상수리나무, 산수유, 굴나무, 무화과나무, 오미자나무, 대래나무, 전나무, 향나무, 느릅나무, 사시나무, 오동, 뱀나무, 가래나무, 회양목, 불나무, 물푸레나무, 광나무, 멸구슬나무, 비자나무, 주엽나무등 이상 木材用, 食用, 藥用, 觀賞用, 섬유용 등 모두 경제성이 높은 나무들이다.

(5) 方藥合編 및 東醫寶鑑의 나무

모든 나무는 약용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두 책에는 사실 모든 나무이름이 등장할만하다. 方藥合編은 황도연(黃道淵) 저이고 동의보감은 허준(許浚) 저이다. 모두 世의 名作임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나오는 나무이름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본다.

뽕나무, 닥나무, 옷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갯버들, 겨우사리, 밤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오얏나무, 매실, 엄나무, 칩, 앵두나무, 모과나무, 포도나무, 대나무, 드릅나무, 치자나무, 감나무, 오미자, 산수유, 목단, 탕자나무, 산사나무, 정향나무, 회화나무, 오갈피, 초피나무, 자귀나무, 황벽나무, 으름, 인동, 상수리나무, 뱀나무, 무화과, 석류, 불나무, 물푸레나무, 주엽나무, 무궁화, 오동나무, 두충나무, 산수유, 계수나무, 후박나무, 야자등.

중국서적인 本草綱目の 나무도 다루어야 할 것이나 지면관계로 생략한다.

(6) 老巨木誌의 나무

우리나라에는 각지에 老巨樹가 많아서 있고 國民의 자발적의식으로서 잘 保護되고 있다. 특출한 것은 天然記念物로 지정되고 다른것은 道指定文化財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아래로 내려가서는 郡나무, 面나무 마을나무라는 品格이 있고 모두 관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制度는 무척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우리국민의 긍지의 一端으로 말할수 있다.

그런데 일찍이 우리나라의 老巨木에 대하여서는 1916년에 조사되어 1919년에 發表된 이시또야(石戶谷)의 보고서가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調査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평지 산록부위 등 땅이 기름진곳을 덮고 있던 수종을 망라하고 있다. 조사에서 湧落된 것이 없었을 것은 아니었겠으나 당시의 主樹種의 면모를 살필 수 있어서 무척 參考가 된다. 調査總件數는 5,330에 이르고 있다. 다음 () 안의 數字는 出現頻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數字가 클수록 더 普遍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느티나무(1,939), 팽나무(817), 은행나무(471), 소나무(450), 들메나무(443), 회화나무(309), 버드나무류(154), 전나무(110), 느릅나무(108), 참나무류(113), 해송(25), 서어나무류(60), 시무나무(35), 엄나무(35), 밤나무(32), 향나무(28), 잣나무(20), 이팝나무(18), 배나무(20), 오동나무(8), 노간주나무(10), 황철나무류(20), 주엽나무(10), 가죽나무(10), 오리나무류(14), 자작나무(9), 벗나무류(9), 감나무(8), 백송(7), 비자나무(5), 피나무류(5), 뽕나무(2), 모과나무(4), 다릅나무(3), 개살구나무(3), 물푸레나무(3), 소태나무(2), 참죽죽나무(2), 멸구슬나무(2), 측백나무(2), 호도나무류(4), 이갈나무(1) 등.

出現頻度가 100건 이상되는 10個樹種은 예나 지금이나 長壽樹木임을 알 수 있다. 서어나무, 시무나무, 가죽나무, 오리나무중에 비교적 多數의 老巨木이 조사되고 있음은 지금의 實情에 비추어 注目이 간다. 以上은 韓半島全體를 대상으로한 內容이다.

(7) 山林廳 保護樹誌의 나무

산림청은 全國의 老巨木을 조사하여 1984년 총 9,516건에 이르는 나무를 기록하고 있다. 현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大多數의 老巨木이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집작된다. 內容의 主要부분은 다음과 같다. () 안은 조사된 件數이다.

느티나무(5,408), 팽나무(1,052), 은행나무(701), 소나무(573), 회화나무(281), 향나무(198), 기타 97種(1,303).

이로써 우리나라에 이는 長壽木의 경향을 알 수 있다. 이 數値에 前項에든 石戶谷의 調査報告値를 直接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나 全然 無意味하지만 양을 것 같아서 다음 樹種別의 出現頻度對比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樹 種	1916 (%)	1984 (%)
느티나무	36	57
팽 나무	15	11
은행나무	9	7
소 나무	8	6
회화나무	7	3
향 나무	0.5	2

上表를 보면 느티나무에 있어서 36%에서 57%의 增加가 靑다르는데 이것은 느티나무가 더 南方樹種이란 것과 長壽木이란 것 그리고 서낭당나무 또는 亭子木이어서 保護가 잘 되었다는데 理由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팽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회화나무, 향나무에 있어서는 그間 큰 差異를 가져온 것 같지 않다.

以上든 것 외에도 閩閩叢書, 養花小錄, 農政全書, 農家指南, 群芳譜, 爾雅, 物名考, 三才圖會 등 많은 책에 기록된 나무들은 우리나라 實學者와 國民들에게 관심을 불러 넣는데 영향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호에 계속)